

전남 의대 단일안 빨리 마련 '의료개혁 테이블'에 올라야

전남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해야

〈2〉 순천대, 공모 참여를

전남 핵심 현안인 국립 의대 설립과 관련, 입지를 일원화하는 공모 과정에 대한 반발 기류가 장기화되면서 30년 숙원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엇박자를 보여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최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면서 2026 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속히 지역의 단일안을 도출해 여·야·정 협의체의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오는 10일 목포대(오전 11시), 순천대(오후 3시)에서 대학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립 의대 설립지 선정을 위한 공모 불참 입장을 밝힌 뒤 설명회 등에 참여하지 않았던 순천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설명회에 참여키로 했다는 점에서 공모 참여로 이어질 지 지역 사회의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정부 서열 1·2위 발인, 지켜지도록 힘 모아야
순천대는 그동안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모 방식에 반대하며 전남도 공모 절차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부에 의대 설립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남도의 공모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순천대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선정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만큼 전남도의 공모 절차는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는 대형로펌·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 서열 1·2위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정책적 판단을 내려줬는데도, 순천대와 순천시가 부정하는 행태는 대통령 발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는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 진행할 생각" (교육부장관·6월 25일), "대

통령·총리, 전남도 의견수렴 요구

공모 불참하면 의대 유치 기회 날려

동부권, 참여 분위기 전환에 기대감

통령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만큼 최우선적으로 검토"(복지부장관·7월 16일) 등으로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정부가 별다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순천대의 '독자적 의대 신청'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공모 참여 거부, '도민 건강권' 우려도="지금처럼 (전남도의) 공모 절차 불참은 의대 유치 기회를 0%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관계자)

순천대가 공모에 불참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형국이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에 과거 용역 내용 공개를 비롯, ▲공모 과정의 모든 문제를 함의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 ▲공모 탈락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등의 조건이 이행되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과거 전남 국립 의대 관련 용역을 전격 공개했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공모를 진행하는 용역기관이 나머지 조건에 대한 입장도 공개한 바 있다. 순천대는 여전히 공모 참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반대 논리에 곧 몰래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동부권에서는 기류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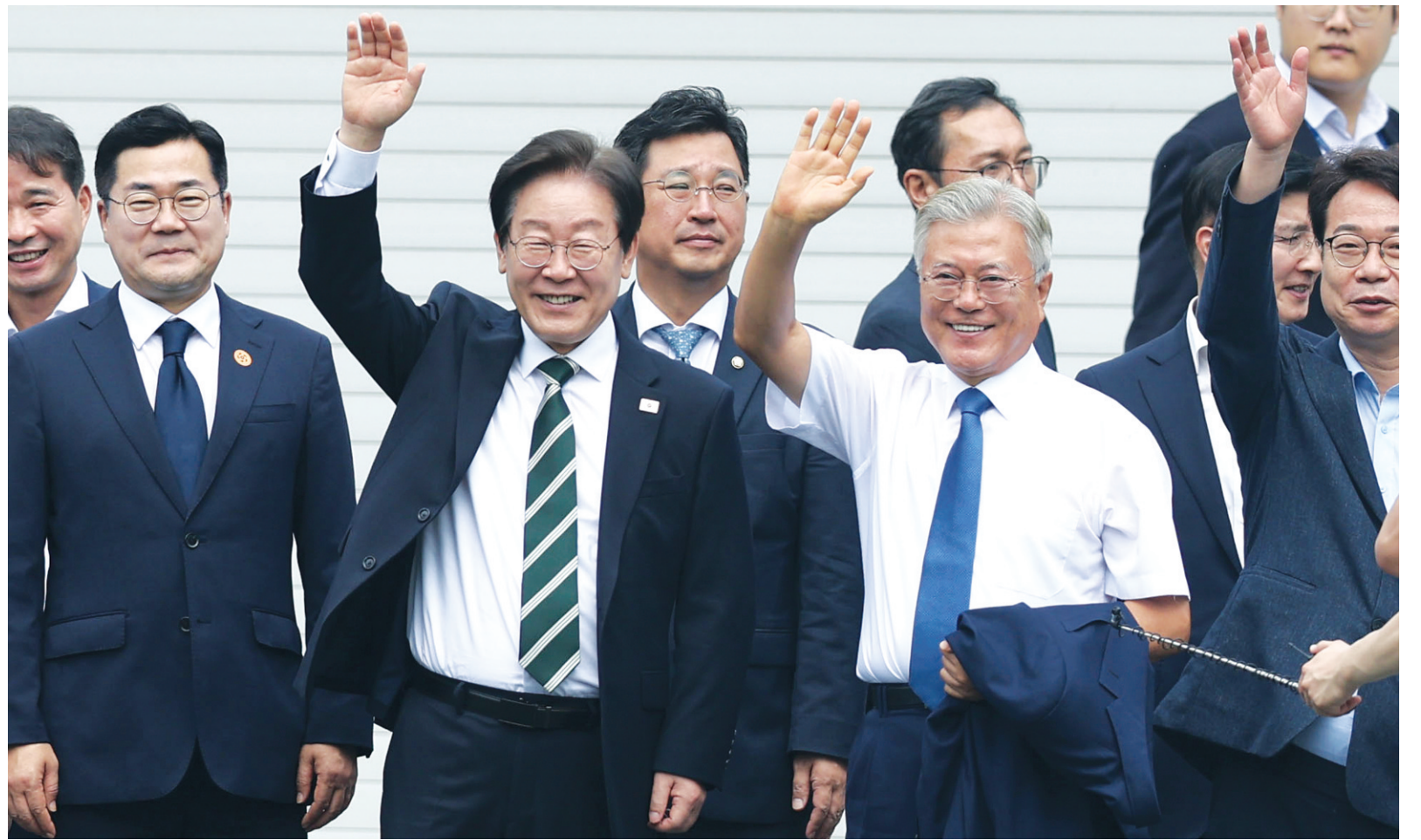
당장, 김문수 의원은 국립의대 설립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전남도의 공모 절차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기존 생각을 바꿔 최근 순천대의 공모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의대 신설을 위한 공모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결정권자인 정부의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순천대 의대 유치가 안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분노한 시민들 표를 얻어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집을 싸 더나면 그만"이라며 "그러나 전남 동부권 도민과 순천 시민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고 했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원과 순천시의원들도 최근 순천대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중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지 공모 절차에 순천대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尹정부, 정치탄압"… 文 "당당히 임할것"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혐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 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말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

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

다.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당이 강성 진영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된 데 따라 중도층의 확장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양산 방문에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되니 당신이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가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이번주가 분수령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여·야·정 협의체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가 협의체 순환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정 갈등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단계로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규모는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대략적인 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다. 국민의힘은 일단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

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료계 종사자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간극을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현재 이미 정부가 1509명 증원을 확정된 2025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항로를 열다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에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가릉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롯데관광 크루즈 스타,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션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션리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Costa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 290m · 전폭 : 35m · 수용인원 : 3,780명 · 승무원 : 1,100명

GRAND HYATT 제주
예약 · 문의 :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보내역] ●여행유의 ●여행지제 ●일수권고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비에 불포함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버스,해리,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